

설씨녀 설화와 영사악부 「과경합」의 서사구조 분석

안 창 수*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서사구조의 차이 |
| II. 서사의 기본구조 | V. 맺음말 |
| III. 기본구조의 작품화 | |

【요 약】

설씨녀 설화와 「과경합(破鏡合)」은 모두 서사갈래에 속하며 동일한 이야기 줄거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설화와 시(詩)의 양식을 취함으로써 동일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하위갈래로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은 문제의 발생과 해결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씨녀 설화는 사건의 전개과정을 드러내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데 비해 「과경합(破鏡合)」은 열부로서의 설씨녀를 부각시켜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설씨녀 설화가 구비문학과 사실의 기록이라는 조건에 제약을 받았던 데에 비해 「과경합(破鏡合)」은 설씨녀 사화(史話)를 읽고 느꼈던 작가의 느낌과 생각을 작품화 하며 이것이

* 밀양대학교 교수

서사구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I. 머리말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설씨녀전」은 당시로는 드물게 부녀자의 정절(貞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절을 미덕으로 삼고 있던 조선시대에 들어오자 많은 문인들이 「설씨녀전」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작품을 남겼다. 조선시대에 「설씨녀전」의 수용은 주로 시의 양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설씨녀전」은 설화로 분류될 수 있는데,¹⁾ 이것이 시(詩)로 수용되며 이들은 설화와 시라는 이종(異種) 갈래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설씨녀전」을 시(詩)로 수용한 것은 여러 작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교적 풍부한 작품이 남겨져 있다. 이들은 대체로 「설씨녀전」에서 핵심화소 한, 두 개를 인용하여 설씨녀의 정절을 탄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광사(李匡師)의 작품 「파경합(破鏡合)」은 「설씨녀전」의 전편을 내용으로 다루며 이것을 나름대로 재구성하고 있다. 작품의 길이도 5언 228구의 장편으로 되어 있어 분량에 있어서는 오히려 「설씨녀전」의 길이를 능가하고 있다.²⁾ 「설씨녀전」전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광사의 작품 「파경합(破鏡合)」은 동일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설화와 시로 나뉘어 수용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변화의 진폭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설씨녀전」의 갈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설씨녀가 신라시대 진평왕(眞平王) 때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설씨녀전」은 구비되어 오던 설씨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설씨녀전」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김영숙, 「영사악부의 설씨녀, 도이처전의 수용·전승 양상」(『한국의 철학』,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를 참고했음.

이광사의 「과경합(破鏡合)」은 「설씨녀전」에 나오는 설씨녀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한 장편 서사시이다. 그리고 「설씨녀전」은 설화이므로 이들은 모두 서사갈래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해보면 설씨녀 이야기가 설화와 시로 나뉘어 수용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변화의 양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II. 서사의 기본구조

설씨녀 이야기는 “신라시대 경주에 살고 있던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실과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가실과의 혼인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게 되었으나 결국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가실과 백년해로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내용으로 볼 때 설씨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사건단락이 서사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 문제에 부딪힘(문제 1)
2. 가실(嘉實)과의 혼인 약속으로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함(해결 1)
3. 혼인 약속 이행에 문제가 생김(문제 2)
4. 문제를 해결하고 가실과 결혼함(해결 2)

사건단락을 통해서 볼 때, 설씨녀 이야기는 설씨녀가 두 번에 걸쳐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위의 사건단락은 『삼국사기』 설씨녀 설화와³⁾ 이광사의 「과경합(破鏡合)」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두 작품이 동일한 이야

3) 앞으로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설씨녀전」을 “설씨녀 설화”로 지칭하기로 한다.

기 줄거리를 가질 뿐 아니라 동일한 서사구조를 기본구조로 하여 나타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발생과 이의 해결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순환구조는 작품에 따라서 문제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해결의 방법도 다채롭게 나타나게 되지만 서사문학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⁴⁾ 무엇보다 문제의 발생과 해결이 사건을 파생시킴으로써 텍스트가 서사문학으로 자리 잡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쳐서 이를 해결해 가는 서사구조는 시작에서 종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게 됨으로써 서사문학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 → 해결로 나아가는 방향은 작품에서 사건의 진행방향이 되며, 이야기의 줄거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작품은 독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긴장과 해결에 따르는 이완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순차적으로 환기시켜주는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독자들의 관심을 흡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단락 1에서 4까지의 순서는 문제의 발생순서에 따라 사건을 시간적 순차로 배열한 것이다. 그러나 단락 1에서 4로 진행되는 사건의 진행은 단순히 사건을 시간적 순차로 배열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위의 사건단락을 보면 단락 2는 단락 1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파생되었고, 단락 3은 단락 2가, 그리고 단락 4는 단락 3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문제에 부딪힌 것이 원인이 되어서 가실과의 혼인약속이 이루어지고, 가실이 설씨녀의 부친 대신 병역문제를 해결하려했기 때문에 설씨녀와의 혼인약속

4) 작품에 따라서 문제 - 해결의 순환구조는 고난 - 행운, 결핍 - 결핍해소, 만남 - 이별의 순환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순환구조가 서사문학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설화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다. 장덕순, 조동일 외 2인 공저, 『구비문학개설』(일조각, 1971) 참고.

이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혼인약속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서 그 해결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앞 단락은 다음 단락의 원인이 되고, 다음 단락은 앞 단락의 결과로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락 1에서 4까지의 사건단락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인과관계에 의한 배열은 1에서 4까지의 사건단락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한 편의 작품으로서 「설씨녀」가 높은 서사적 완성도 위에서 구축된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건단락이 인과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이것은 사건의 의미를 보다 복잡하게 엮어주며 작품에 의미적 깊이를 더해주기도 한다. 단락 1에서 설씨녀는 연로한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효(孝)를 실천하려는 것이다.

단락 1의 문제는 단락 2에서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나선 가실과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해결된다. 설씨녀가 가실과 혼인을 약속한 것은 오직 가실이 부친의 병역을 대신 부담한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이다. 설씨녀로서는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효의 실행이 부모를 위해 자기를 내어던지는 자기희생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가실과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파생되어진 단락 3은 보다 복잡한 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단락 3에서 가실과의 혼인약속 이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설씨녀의 부친이 가실의 귀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설씨녀에게 다른 곳에 시집갈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설씨녀에 대한 부친의 강요는 효(孝)와 열(烈)을 대립적인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설씨녀는 부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효를 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실과의 약속을 위해 정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설씨녀는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고 마침내는 자

신을 희생해서 문제를 해결한 효녀였다. 그러나 단락 3에서 설씨녀는 가실이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자신도 연로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다른 곳에 시집가라는 부친의 간곡한 권유를 거부한다. 나아가 도망을 시도하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도 한다.⁵⁾ 이제까지 부친에게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던 설씨녀가 그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저항적이며 도전적인 여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설씨녀의 변모는 효녀에서 열부(烈婦)로의 변신이다. 그런데 설씨녀의 열(烈)은 부친을 저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열(烈)을 위해 효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효(孝)와 열(烈)은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선택의 대상으로 다가올 때 이것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심적 갈등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설씨녀 설화에서 설씨녀는 다른 곳에 시집가라는 부친의 요구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들어 부친에게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부친은 설씨녀의 요구를 거부하고 강제로라도 설씨녀를 마을 사람에게 시집보내려 한다. 마침내 설씨녀는 부친의 시도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도망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자 가실이 남겨두고 간 말을 쓰다듬으며 울음을 터트린다.

설씨녀와 부친이 모두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부친은 어떻게 해서든 설씨녀를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 하고 있고, 설씨녀는 그녀대로 가실과의 혼인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설씨녀 설화는 혼사장애의 문제에서 설씨녀와 부친의 대립이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하게 맞서며 지속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고, 혼사장애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지고 있다.

부친과의 대립은 설씨녀 자신에게도 내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5) 『三國史記』卷四十八 薛氏女條에서 설씨녀는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광사의 『과경합(破鏡合)』에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도 한다.

설씨녀는 자신의 의지가 실현되지 않는 절망적 상태에서 가실이 맡겨 놓고 간 말을 쓰다듬으며 울음을 터트리고 있는데, 설씨녀의 울음은 부친의 강요를 물리치지 못하고 가실과의 혼인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에서 오는 절망적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실과의 혼인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는 간절한 심사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설씨녀가 부친과 가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각한 심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⁶⁾

그러나 「과경합(破鏡合)」에서의 설씨녀는 부친의 부당함을 논박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부친은 설씨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다. 부녀 사이의 대립이 일정한 선에서 해소되며 설씨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혼인약속을 가로막는 장애를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설씨녀는 부친과의 대립에서 시종일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연함을 유지하며 추상같은 자세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설씨녀 설화에서는 설씨녀가 부친과의 대립이 평행선을 긋는 데에서 오는 인간적 고뇌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면, 「과경합(破鏡合)」에서는 준열한 열부로서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설씨녀 설화에서 부친과의 대립으로 생긴 혼사장애(婚事障礙)는 단락 4에서 가실이 불현듯 나타남으로써 해결된다. 가실의 등장은 혼인을 가로 막는 장애가 해소되지 않고 있던 설씨녀 설화에서 사건의 전개를 순식간에 전환시키는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과경합(破鏡合)」에서는 부친과의 대립이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설씨녀 설화에서와 같은 극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래 기다리던 사람과의

6) 손정인은 「설씨녀전의 인물형상과 서사구조」(『대동한문학』14집, 대동한문학회, 2001.6)에서 열전의 편찬 의식에 주목하여 설씨녀의 심적 갈등이 부친에 대한 효심(孝心)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효를 강조하다보면 설씨녀 설화가 지니고 있는 본래적 가치인 정절의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

반가운 해후라는 의미를 갖는 데 머무르고 있다. 설씨녀 스스로 혼사 장애를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작품에서 가실의 역할이 축소되었던 결과이다.

Ⅲ. 기본구조의 작품화

설씨녀 설화와 이광사의 「과경합(破鏡合)」은 이야기 줄거리와 서사의 기본구조가 동일한 작품임에도 문제를 쳐다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서사의 기본구조를 작품화 하는 데에도 이들이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기본구조에 나오는 각 단락의 내용을 두 작품에서 작품화 하고 있는 양상을 단락 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단락 1은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문제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다. 설씨녀 설화에서 이 대목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사건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 설씨녀가 한문단족(寒門單族)이나 안색이 곱고 행실이 단정하여 사람들이 범접치 못했다.
- 1-2. 설씨녀의 부친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 1-3. 설씨녀가 여자라서 늙고 병든 부친의 병역의무를 뒷바라지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다.

단락 1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에서 단락 1-1에서 1-3까지는 단락 1의 하위단락이다. 여기에는 설씨녀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 소개된 다음 그녀의 부친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과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의무를 뒷바라지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다는 사실이 소개되고 있다.

소개된 각각의 사실들은 그 사실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설명이나 다양한 장면 또는 사건들로 채워져서 드러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락 1-1에서 1-3까지는 이야기의 내용이 한 두 마디의 설명적 어구로 요약되어 있다. 예컨대 설씨녀의 부친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락 1-2는 설씨녀 설화를 성립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작품에는 “진평왕 때 설씨녀의 부친이 정곡(正谷)을 방비하는 당번으로 가게 되었다”⁷⁾ 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 결과 단락 1-1에서 1-3까지는 이야기의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줄거리만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과경합(破鏡合)」에서 단락 1은 여섯 개의 하위단락으로 나뉘어지며, 각 하위단락은 장면에 해당하는 분절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

- 1-1.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
- 1-2. 신부가 신랑에게 무언가를 탄식하는 장면
- 1-3. 옛 여자들의 강인함이 소개되는 장면
- 1-4. 설씨녀의 어린시절이 소개되는 장면
- 1-5. 설씨녀의 부친에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장면
- 1-6.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장면

장면은 일정한 크기로 독립되어진 시공간적 배경을 가지며 무슨 일인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장면은 또한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미로 묶여질 수 있는 이야기의 의미적 단위이기도 하다. 즉 장면은 일정한 크기의 물리적 공간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보여주는 단위이다. 그러므로 단락 1이 여섯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섯 번에 걸치는 장면의 이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양한 의미적 상항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면의 이동을 통해서 「과경합(破鏡合)」에는 설씨녀가 가실과 결혼

7) 眞平王時 其父年老 番當防秋於正谷(三國史記 卷四十八).

한 신혼초야의 신방이 소개되고, 설씨녀의 어린 시절이 소개되기도 하며, 부친의 병역 문제에 부딪혀 그녀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 등이 두루 소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작품에는 설씨녀가 처해 있던 삶의 조건이나 정황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장면이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장면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장면은 한 마디의 개략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채워진다. 『과경합(破鏡合)』에서 단락 1의 하위단락은 다음과 같은 다수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

- ① 젊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있다.
- ② 달빛이 난간 위를 비추고 있다.
- ③ 등불은 어두운 방을 밝히고 있다.
- ④ 좌우에는 반쪽 거울이 걸려 조용히 빛나고 있다.

1-2. 신부가 신랑에게 무언가를 탄식하는 장면

- ① 신부가 신랑에게 속삭여 말하고 있다.
- ② 이들은 한 마디 말에 세 번씩 탄식하고 있다.

1-3. 옛 여자들의 강인함이 소개되는 장면

- 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즐겁다가도 슬퍼졌다.
- ② 나는 옛 여자들이 아버지 대신 출정하여 공을 세우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다.

1-4. 설씨녀의 어린시절이 소개되는 장면

- ①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했다.
- ② 몸에는 옷을 걸치고,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다리로는 힘들게 마루를 다녔다.
- ③ (그러나) 창을 들 힘이 있으면 적장으로 달려가고자 했다.

1-5. 설씨녀의 부친에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장면

- ①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15세에서 60세까지 병졸을 뽑아 나라를 지켰다.
- ② 설씨녀의 부친은 늙고 병들었으나 국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 ③ 눈앞에는 병역을 대신할 아들이 없어 괴로웠다.
- 1-6.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장면
- ①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장수가 되려 했다.
- ② 아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칼 쓰기와 창 쓰기 등을 배웠다.
- ③ 그러나 너무 힘에 벅차서 포기하고 아버지를 안고 애통해 했다.

단락 1-1에서 1-6에 이르기까지 각 단락은 다수의 사건으로 채워져 있는데, 사건은 대부분 인물들의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 행위의 주체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각 단락의 사건은 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를 수행하는 인물들의 성격이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혼초야 신방의 정경이나 그 안에서 있었던 일, 어린 시절 설씨녀의 모습이나 성격, 고난에 처했을 때의 반응 등이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경합(破鏡合)」은 이야기 전개에 필수적으로 소용되는 최소한의 줄거리만을 전달하는 데에서는 알 수 없었던 정보, 즉 설씨녀가 처해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런데 단락 1-1에서 1-4까지는 설씨녀가 소개되는 부분이고, 단락 1-5는 설씨녀의 부친에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이, 단락 1-6은 설씨녀가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소개되는 부분이다. 설씨녀 설화와 비교해 본다면 단락 1-1에서 1-4까지는 설씨녀 설화의 단락 1-1에 해당되고, 단락 1-5는 1-2에, 1-6은 1-3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경합(破鏡合)」에서 단락 1이 여섯 개의 하위단락으로 나누어진 것은 설씨녀 설화에 비해서 설씨녀를 소개하는 부분이 4개의 단락으로 확장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씨녀를 소개하는 부분을 4개의 단락으로 확장하면서 「과경합(破鏡合)」은 수미쌍관의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즉, 「과경합(破鏡合)」에서 단락 1-1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신방을 꾸미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고, 단락 1-2는 신부와 신랑이 신방

에서 속삭이며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과경합(破鏡合)」은 설씨녀와 가실이 혼사장애를 겪은 후 다시 만나서 신방을 꾸미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고 있다.

新婦迎新郎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嫿態適短長	아름다운 자태에 키도 알맞아
不謂野農家	야인의 농촌 가정이라 말하지 마시오
生育杜蘭香	두란폴 향기같이 키웠다고
< >	
誰意一牀燭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한 자리 촛불 아래
歡娛殊未央	끝없이 즐기고 기뻐하게 될 것을 8)

위의 인용문은 「과경합(破鏡合)」의 마지막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설씨녀와 가실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혼하여 신방을 꾸미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경합(破鏡合)」은 시작과 끝이 서로 이어지며 신랑, 신부가 신방을 꾸민 신혼초야에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작품이 구성됨으로써, 현재의 장면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장면으로 끝나면서 그 중간에 액자형식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사물은 시간에 의해 작품을 구성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미쌍관법에 의한 시간의 구성법은 물리적 시간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구성법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에서 「과경합(破鏡合)」의 서사적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것이다.

설씨녀를 소개하는 부분을 4개의 단락으로 확장시킨 것은 설씨녀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단락 1-3은 옛 여자들의 강인

8) 김영숙, 이광사의 「과경합」구성과 삼국사기 「설씨녀」전 수용 · 전승 양상 (『한민족어문학』 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12.30, 180쪽) 에서 인용. 앞으로는 인용문에 별도의 주를 달지 않고 인용문 끝에 쪽 번호만 표시하기로 한다.

함이 소개되는 장면이고, 단락 1-4는 설씨녀가 허약하게 태어났지만 기개가 있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설씨녀의 이러한 성격은 단락 1-6에서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쓰기와 창쓰기를 배워 스스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 하는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려서부터 굳세고 강인한 성격이었다는 것은 설씨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일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 부친의 강요로 가실과의 혼인약속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 시킴으로써 위기를 해결하는 준열한 열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단락 1-3과 1-4는 단락 3에서 설씨녀를 갑자기 열부로 돌출시키지 않을 수 있게 하였고, 이 때문에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열부로서의 설씨녀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단락 2는 설씨녀가 가실과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부친의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대목이다. 가실이 설씨녀 부친의 병역의무를 대신하기로 자원을 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설씨녀와의 혼인 약속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임지로 떠나는 것이 단락 2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세 개의 중심되는 사건이다. 이로 말미암아 단락 2는 세 개의 중심 사건을 각각 하나의 장면으로 하는 세 개의 하위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2-1. 가실이 병역의무를 자원하는 장면
- 2-2. 혼인을 약속하는 장면
- 2-3. 이별의 장면

단락 2-1에서 2-3은 설씨녀 설화와 『과경합(破鏡合)』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두 작품은 위의 세 단락을 하위단락으로 하여 단락 2를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두 작품이 동일한 하위단락을 단락 2의 기본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위단락의 각 장면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먼

저 설씨녀 설화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2-1. 가실이 병역의무를 자원하는 장면

- ① 가실은 가난했지만 뜻이 곧은 남자였다.
- ② 그는 설씨녀를 좋아했지만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 ③ 설씨녀의 부친이 종군(從軍)한다는 말을 듣고 설씨녀에게 병역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 ④ 설씨녀가 이 말을 부친에게 알린다.

2-2. 혼인을 약속하는 장면

- ⑤ 설씨녀의 부친이 병역을 대신해주는 데 대한 보답으로 설씨녀와의 혼인을 약속한다.
- ⑥ 가실도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 ⑦ 가실이 혼인을 서두르려 하자 설씨녀가 혼기(婚期)를 종군 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2-3. 이별의 장면

- ⑧ 설씨녀가 거울을 꺼내 반으로 나눈 뒤 가실에게 반쪽을 신표(信標)로 준다.
- ⑨ 가실이 설씨녀에게 말을 맡기며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한다.
- ⑩ 가실이 설씨녀와 헤어져 임지로 향한다.

단락 2-1에서 2-3의 각 장면은 다수의 사건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사문학에서 사건은 이야기를 어느 한 순간의 시점(時點)에 고정시켜놓지 않고 다음의 이야기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가는 이야기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야기의 전개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단락 2의 사건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행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락 2의 사건들이 단락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씨녀 설화는 단락이 바뀌면서도 앞 단락의 행위가 다음 단

락으로 계속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앞 단락의 행위가 다음 단락의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은 앞 단락의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 단락의 행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단락 2-1은 병역을 대신하겠다는 가실의 말을 설씨녀가 그 부친에게 전하는 행위로 끝나는 데, 단락 2-2는 그에 대한 설씨녀 부친의 반응으로 시작되고 있다. 단락 2-3 또한 혼인을 종군 뒤로 연기하자는 설씨녀의 부탁이 나오는 단락 2-2의 행위에 이어서 설씨녀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표를 가실에게 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장면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므로, 장면의 이동은 새로운 시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장면을 구성하게 한다. 그런데 새로운 단락의 행위가 앞 단락의 마지막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설씨녀 설화에서는 장면이 바뀌면서도 이야기가 어느 한 지점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이어지며 진행될 수 있는 운동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이러한 구성법은 「과경합(破鏡合)」에서 단락 1이 여섯 개의 하위단락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단락마다 다수의 사건이 나타나지만, 사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⁹⁾ 다시 말해서 「과경합(破鏡合)」에서 단락 1-1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 신방에 반쪽 거울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단락 1-2는 신부가 신랑에게 무언가를 속삭여 말하는 행위로 시작된다. 반쪽 거울이 빛을 발하는 신방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무언가를 속삭여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행위가 연속적인 것이 되려면 신부가 속삭이는 행위가 거울이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9) 행위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씨녀 설화에서 단락 2-1에서 2-3까지의 하위단락들은 ①~⑩으로 이어지는 일련번호로 표시하였고, 연속성을 갖지 않는 데에서 「과경합(破鏡合)」의 단락 1-1에서 1-6의 하위단락은 단락마다 하위단락의 일련번호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불연속 현상은 다음 단락에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단락 1-3은 신부의 탄식을 들은 작가가 자신의 심회를 피력하는 행위로 시작된다.¹⁰⁾ 그런데 작가는 작품외적 인물이다. 그리고 행위의 연속성 여부는 작품내적 인물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자신의 심회를 피력하는 행위는 단락 1-2에서 신부가 탄식하는 행위와는 아무런 연속적 관계도 맺지 않는다.

단락 1-4는 설씨녀가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했다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것 또한 작가가 자신의 심회를 피력하는 단락 1-3과는 행위의 연속성을 갖지 않고 있으며, 국가는 문제가 있을 때 병졸을 뽑아 나라를 지켰다는 것으로 시작되는 단락 1-5의 행위도 단락 1-4에 나오는 설씨녀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행위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과경합(破鏡合)」의 단락 1은 다수의 사건으로 채워져 있었음에도 이야기의 전개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단락 1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하위단락은 사건전개의 연속성이나 인과관계에 의해 관계 맺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설씨녀가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설씨녀 설화에서 단락 2가 인물들의 행위에 의해서 다수의 사건으로 채워져 있는 것과 달리 「과경합(破鏡合)」의 단락 2는 사건이 개략적 설명으로 대체되거나 인물들의 대화로써 대체됨으로써 인물들의 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邨鄰有少年	이웃집에 소년이 있어
自願贊父將	아버지 대신 가기를 자원하니
微誠詎感激	작은 정성 어찌나 감격했는지

10) 단락 1-3에 나오는 행위의 주체가 작가라는 것은 김영숙, 앞의 글(『한민족어문학』45집)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高義陵穹蒼 높은 뜻은 하늘보다 높네 (174쪽)

위의 인용문은 가실이 병역의무를 자원하는 장면인 단락 2-1의 부분이다. 가실이 설씨녀 부친의 병역의무를 대신 자원했다는 사실이 한 마디의 설명적 어구로 나타나 있을 따름이다. 설씨녀 설화에서는 가실이 설씨녀를 좋아했지만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설씨녀 부친이 중군한다는 말을 듣고 설씨녀에게 자신이 병역을 대신하겠다고 하고 설씨녀는 이 사실을 부친에게 알리는 등 이 장면이 인물들의 다양한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과 대조된다.

인물들의 행위가 위축되어 있는 현상은 단락 2-2와 2-3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少年再拜告	소년 절하며 고하길
教言多感惶	<하교하신 말씀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今行賴王靈	지금 가는 길 국은에 힘입어
不死還敝庄	죽지 않고 고평으로 돌아오면
誓天地鬼神	천지귀신에게 맹세하노니
兼義不相忘	의리를 서로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我有藤原鏡	저에겐 등원의 거울 있으니
背畫雙鳳凰	뒤에는 한 쌍의 봉황이 그려져 있소
生死宜有信	살거나 죽거나 마땅히 신표가 있어야 하니
分之各收藏	쪼개어 각각 보관합시다
又有絕影馬	또 절영마 한 필 있으니
行地性馴良	다니는데 길이 잘 들었소
步兵無所乘	보병에겐 탈 필요 없으니
爲解紫絲韁	붉은 실의 고삐를 풀어 드리리다 >
舉手更丁寧	손을 들어 다시 간절히 말하며
裝束告分張	행장을 묶고 이별 고하네 (175쪽)

위의 인용문은 가실과 설씨녀가 이별하는 이별의 장면인 단락 2-3의

전문(全文)이다. 그런데 인용문의 대부분은 가실이 설씨녀와의 혼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인용문에서 괄호 안에 고딕체로 표시된 부분이 대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빼고 나면, 가실이 절하며 말하고 떠나갔다는 행위만이 남게 된다. 가실과 설씨녀가 거울을 쪼개어 보관하고, 가실이 설씨녀에게 말을 맡기고 가는 행위 등이 대화의 내용으로 처리됨으로써 인물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단락 2는 단락 1과 단락 3의 사건을 이어주는 매개단락이다. 이런 점에서 단락 2는 설씨녀와 가실이 혼인을 약속하기까지의 서사적 과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락이다. 그러나 인물들의 행위가 설명이나 대화로 대체됨으로써 「과경합(破鏡合)」의 단락 2에는 서사적 과정이 최소화되며 작품의 초점이 다른 부분으로 옮겨져 있다.

가실이 병역의무를 자원하는 장면인 단락 2-1에는 앞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실의 행위가 최소화되어 있는 대신 가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찬탄이 나타난다. 혼인을 약속하는 장면인 단락 2-2는 설씨녀 부친이 가실의 안위를 염려하며 설씨녀와의 혼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하는 한 번의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다.¹¹⁾ 설씨녀 부친이

11) 단락 2-2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貧家有女兒	가난한 내 집에 딸이 있는데	無物可報償	보상할 물건이 없소
所學祇有孃	배운 바는 여자의 바른 행실뿐	望君成功還	그대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鄙陋無所習	비루하여 배운 바 없고	待年於閨房	딸아이 규방에서 세월을 기다리게 하리라
見識唯蠶桑	보아 아는 건 다만 누에치기뿐	君行須期發	그대 가는 길을 출발하거든
容姿未逾人	용모는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나	勿復念齋裝	가져갈 행장은 걱정 마오
性度足端莊	성품과 법도는 바르고 훌륭하네	弱女已自治	어린 딸이 스스로 준비했으니
老父感君義	이 늙은이 그대에게 감동하나	戈甲與糒糗	창과 갑옷과 마른 양식이오

(175쪽)

말하는 한 번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서사적 과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락 2-2에는 혼인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이별의 장면인 단락 2-3에도 인물의 행위가 최소화되어 있는 대신 가실이 약속을 지킬 것을 천지귀신에게 맹세하고 등원의 거울로 신표를 나누어 주고 절영마를 맡기고 가겠다고 말하게 하여, 그가 신의를 중시하는 인물이고 이별 후의 일도 세심하게 챙겨두는 신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가실의 의로운 행위를 찬탄하고, 설씨녀 부친이 혼인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하게 하고, 가실을 신의를 중시하는 신중한 인물로 부각시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실과 설씨녀의 혼인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경합(破鏡合)」의 단락 2는 앞으로 단락 3에서 가실과 설씨녀의 혼인약속이 장애에 부딪혔을 때 이것의 해결 방향을 미리 제시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설씨녀 설화의 단락 2가 단락 1과 3을 연결해주는 매개단락으로서 사건의 전개과정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단락 3은 설씨녀와 가실의 혼인약속이 장애에 부딪히는 대목이다. 설씨녀 설화에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하위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3-1. 가실이 6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 3-2. 설씨녀 부친이 설씨녀에게 다른 곳에 시집갈 것을 요구했다.
- 3-3. 설씨녀가 그 부당함을 들어서 거부했다.
- 3-4. 설씨녀 부친이 마을 사람과 몰래 혼인을 약속하고 설씨녀를 강제로 시집보내려 했다.
- 3-5. 설씨녀가 도망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3-6. 설씨녀가 마구간에서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단락 3-1에서 3-6까지는 가실과의 혼인약속을 파기하고 설씨녀를 다

른 곳에 시집보내려 하는 부친과 이에 맞서는 설씨녀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혼사장애를 다루고 있는 단락 3은 설씨녀 설화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설씨녀 설화는 단락 1에서와 같이 사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단락 3-1은 가실이 6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락인데, “국가에 변고가 있어 사람을 교대해주지 않아서 6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며¹²⁾ 한 마디로 내용을 요약해서 서술하고 있다. 변고의 내용이라든가 6년이라는 긴 시간의 삶이 한 마디의 말로 압축되어 있다.

설씨녀 부친이 설씨녀를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려 하는 부분도 “그 부친이 늙어 90세가 되었고 딸이 장성하여도 짝이 없을까 하여, 강제로 그녀를 시집보내내기 위해 몰래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하고 날을 잡아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려 하였다”고¹³⁾ 되어 있다. 딸아이 몰래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이 술한 갈등과 우여곡절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이 모든 과정 또한 부친이 몰래 혼인을 약속하고 설씨녀를 시집보내려 했다는 한 마디로 압축되어 있다.

설씨녀가 도망을 기도하고 이것이 실패로 끝나는 과정도 “설씨녀가 굳게 저항하여 도망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했다”고¹⁴⁾ 되어 있고, 도망에 실패한 후의 행적도 “마구간에서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고¹⁵⁾ 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설씨녀 설화의 단락 3은 내용에서 엄청난 서사의 양(量)을 가졌음에도 압축되어 간략하게 표출되어 있다. 서사의 내용이 압축되

12) 會國有故 不使人交代 淹六年未還 (三國史記 卷四十八)

13) 其父老又老 以其女壯而無伉儷 欲強嫁之 潛約婚於里人 既定日引其人(三國史記 卷四十八)

14) 薛氏固拒 密圖遁去而未果 (三國史記 卷四十八)

15) 至廐見嘉實所留馬 太息流淚 (三國史記 卷四十八)

지 않았더라면 단락 3-1에서 3-6까지는 다수의 장면이나 사건으로 채워지며 각각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전달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독자들은 서사의 어느 지점에 머무르며 그 지점의 이야기 내용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각 단락의 내용이 한 마디로 압축됨으로써, 독자들은 서사의 어느 지점에 머무르기보다 급하게 다음 단계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단락 3은 인물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대립과 갈등이 가시화되며 위기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이다.¹⁶⁾ 극적 긴박감이 고조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서사의 내용이 압축되면서 설씨녀 설화의 단락 3-1에서 3-6까지는 각 상황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만 확인한 후 급하게 다음 단계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내용은 최소화되고 과정의 긴박감만이 강조되어 있다.

『파경합(破鏡合)』의 단락 3은 가실이 돌아오지 않는 6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과 설씨녀와 부친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로 명확하게 양분되어 있는 것이다.

전반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다.

- ① 가실이 고구려와의 전장에 나아가 용감하게 싸움
- ② 설씨녀는 가실의 안위를 염려하며 지냄
- ③ 전쟁이 백제 쪽으로 확대되어 가실이 돌아오지 못함
- ④ 설씨녀는 하릴없이 6년을 기다림

단락 ①과 ③은 6년 동안에 있었던 가실의 행적을, 단락 ②와 ④는 설씨녀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가실과 설씨녀의 행적을 번갈아서 드러

16) 설씨녀 설화의 극본적(劇本的) 성격을 규명해 보려는 것도 이 부분의 극적 성격에 주목한 것이다 (황인덕, <설씨녀>전의 극본적 성격 (『한국민속학』23집, 한국민속학회, 1990, 161쪽~162쪽).

냄으로써, 한 치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종군하고 있는 가실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실을 기다리는 설씨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있다.

그런데 가실과 설씨녀의 행적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게 되자 작품은 가실이 있는 전장과 설씨녀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을 오가며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다. ①전장 → ②고향 → ③전장 → ④고향이라는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장과 고향을 오가는 공간의 이동은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을 동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단락 ②의 시간은 단락 ①에서 가실이 전장에서 보낸 시간의 길이를 물려받아서 서술되고 있고,¹⁷⁾ 단락 ③의 시간은 단락 ②에서 설씨녀가 고향에서 가실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의 길이를 물려받아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¹⁸⁾ 이런 점에서 단락 ①과 단락 ③을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단락 ②를 끼워 넣은 것은 단락 ①과 ③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더욱 크게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므로 가실과 설씨녀의 행적을 번갈아서 서술하며 가실의 행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한 것은 가실이 전장에서 보낸 시간이 오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술적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설씨녀의 행적을 두 번으로 나누어 서술한 것 또한 설씨녀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를 갖는다. 단락 ②에서 근심스럽게 두구

17) 단락 ②는 “설씨녀가 나이가 차서 점점 아름답게 성장했다(兒年漸婉晚)”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가실이 전장에서 보낸 시간의 길이가 설씨녀를 변모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락 ②의 시간이 단락 ①에서 가실이 보낸 시간의 길이를 물려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 단락 ③은 “또 백제가 쳐들어 온다는 말을 듣고(又聞百濟入)”라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서 ‘또’라는 말은 이야기의 전개에서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한편’, ‘그 동안’ 등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 또한 단락 ③이 단락 ②에서 설씨녀가 보낸 시간의 길이를 물려받으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풀을 바라보며 기약도 없이 가실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설씨녀의 심리는¹⁹⁾ 창밖에 외가 여섯 번이나 달리는 단락 ④의 상황과²⁰⁾ 맞물리며 설씨녀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반부는 가실과 설씨녀의 행적을 대비시키며 가실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전장에서 귀환하지도 못했던 사연이 무엇이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무소식과 미귀환이 설씨녀와의 사이에 흐른 긴 시간의 흐름과 맞물려서 장차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잉태되어 있던 문제가 갈등으로 표출되는 부분인데, 가실이 6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설씨녀 부친이 설씨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려 함으로써 부친과 설씨녀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후반부의 대부분은 설씨녀와 부친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친이 설씨녀에게 다른 곳에 시집갈 것을 권함
- ② 설씨녀가 가실과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며 부친의 요구를 거절함
- ③ 부친이 가실의 잘못을 들어 다른 곳에 시집갈 것을 재차 권함
- ④ 설씨녀가 부친의 신의(信義) 없음을 지적하고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겠다고 함
- ⑤ 부친이 황망하여 자신의 주장을 철회함
- ⑥ 설씨녀는 가실이 두고 간 말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함

단락 ①, ③, ⑤는 설씨녀 부친의 행위를, 단락 ②, ④, ⑥은 설씨녀

19) 歸其庵差池 돌아올 기약 어긋나자
 愁見荳蔻香 근심스레 향기 나는 두구풀만 바라보네

20) 牕外歲種瓜 창밖엔 해마다 외씨를 심었더니
 六見實瓣瓠 여섯 차례 열매 맺어 외가 달렸네 (176쪽)

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부처럼 두 사람의 행위가 번갈아 나타나며 대비를 통하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자 설씨녀와 설씨녀 부친의 입장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설씨녀의 입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설씨녀 부친은 기약도 없는 기다림으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 현실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대립은 이런 점에서 명분과 실리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딸과 아버지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갈등은 효(孝)와 열(烈)이 대립되는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만만찮은 쟁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명분과 실리, 효와 열의 대립이 병존하며 어느 한 쪽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은 장차 남편이 될 사람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열(烈)을 지키는 것이 되고, 부질없는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대한 딸아이의 효(孝)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명분, 열 : 실리, 효의 대립쌍이 만들어지고 있다.

명분과 열 그리고 실리와 효는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는 덕목들이기에 그 자체로는 가치의 우열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씨녀와 부친의 대화가 번갈아 나오며 가치관의 대립은 논쟁을 거쳐 어느 한 쪽의 승리로 귀결된다.

설씨녀 부친은 단락 ①에서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며 설씨녀에게 다른 곳에 시집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버이에 대한 효를 전제로 실리를 취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설씨녀는 단락 ②에서 가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친의 요구를 거절한다. 설씨녀의 거절은 부친에게 명분에 밀려 효도 실리도 기대하기 어렵게 하였다. 불리함을 느낀 설씨녀 부친은 단락 ③에서 3년이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은 가실이라고 하며 명분을 지킬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

명분의 무용(無用)함을 주장하는 부친에 대해 설씨녀는 단락 ④에서

강력한 저항을 한다. 가실이 전쟁터에 나간 것은 설씨녀 부친의 병역을 대신했기 때문이므로, 그가 늦게 오는 것도 부친의 책임이고 죽었다면 그것도 부친의 책임이므로²¹⁾ 가실과의 혼인약속은 더욱 파기될 수 없는 명분을 갖는다고 하며, 명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설씨녀의 주장은 단락 ③에서 약속파기의 책임을 가실에게 돌리려 했던 부친의 허구를 백일하에 드러내며, 모든 잘못의 책임이 부친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설씨녀 부친은 이제 아무런 실리도 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단락 ⑤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다.²²⁾

명분, 열 : 실리, 효의 대립에서 명분과 열의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설씨녀는 열부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스스로의 힘으로 혼사장애를 극복하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설씨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명분도 획득하게 되었다.

가치의 논쟁에서 실리와 효가 명분과 열에 밀리게 된 것은 설씨녀 부친이 효를 실리와 연결했기 때문이다. 효는 열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명분적 가치이며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가 아니다. 이익과 연결되면 효는 타락하게 되어 더 이상 명분적 가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설씨녀 부친은 효의 가

21) 其人爲誰迕 그 사람이 누굴 위해 갔습니까
 豈不代老尙 어찌 아버지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人遲卽翁遲 그 사람이 늦게 혼 건 아버지가 늦게 오신 것이고
 人亡卽翁亡 그 사람이 죽는다면 아버지께서 별세하신 것입니다 (178쪽)

22) 딸아이의 반격에 설씨녀의 부친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다.

老翁大驚遑 늙은이 크게 놀라 어찌할 줄 모르며
 任汝自在由 너에게 맡길 테니 마음대로 하라
 老父敢主張 내가 감히 주장을 하였구나 (179쪽)

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고,²³⁾ 이런 점에서 실리와 효가 명분과 열의 가치에 밀리게 된 것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과경합(破鏡合)』에서 단락 3의 후반부는 단락 ⑥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이 설씨녀와 설씨녀 부친의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다. 대화, 특히 두 사람의 말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대비시켜 보여주는 효과를 갖는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관을 대립시켜서 논쟁적으로 승패를 가르는 데 대화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과경합(破鏡合)』의 작가는 『삼국사기』의 설씨녀 사화를 대본으로 하며 열부로서의 설씨녀를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고,²⁴⁾ 대화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의도가 성공적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단락 4는 혼사장애가 해소되고 가실과 설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대목이다. 설씨녀 설화에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하위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4-1. 설씨녀와 가실이 다시 만나는 장면

- ① 가실이 돌아왔으나 집안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 ② 가실이 앞으로 나와 깨어진 거울을 던졌다.

23) 이런 점에서 『과경합(破鏡合)』이 설씨녀 부친의 우매함을 폄자(貶刺)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는 (김영숙, 앞의 글(『한민족어문학』45집, 189쪽) 타당성을 갖는다.

24) 『과경합(破鏡合)』의 창작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작가인 이광사의 아들로서 이광사의 작품에 화답시를 썼던 이영익(李令翊)의 작품 『과경합(破鏡合)』에는 설씨녀의 정절이 가을 서릿발 같다고 탄상하고 있고, 『삼국사기』의 『설씨녀전』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 대부분이 설씨녀의 정절을 탄상하고 있다는 점에서(김영숙, 영사악부의 설씨녀, 도이 처전의 수용 · 전승양상(앞의 책, 80~94쪽 참고), 이광사도 설씨녀의 열(烈)을 부각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듯이 『과경합(破鏡合)』은 설씨녀의 정절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 ③ 설씨녀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울었다.
- ④ 설씨녀 부친과 집안사람들도 기뻐했다.

4-2. 결혼하는 장면

- ① 날을 가려 결혼을 약속하고 백년해로했다.

하위단락의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설씨녀 설화는 설씨녀와 가실이 다시 만나는 것으로 사실상 끝나고 있다. 단락 4-2는 가실과 설씨녀의 행복한 결말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데 머무는 부가적 기능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장면 전체가 한 마디의 설명적 서술로 요약되어 있는 것도 단락 4-2가 갖는 부가적 기능의 결과인 것이다.

단락 4-1은 가실이 돌아와서 설씨녀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①과 ②는 가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과정이고, 단락 ③과 ④는 사람들이 가실의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가실은 단락 ①에서 설씨녀 집안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다음 단락 ②에서 설씨녀에게 모습을 드러낸다.²⁵⁾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가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실은 신표로 간직했던 거울을 보여주어야 했고, 마침내 단락 ③에서 설씨녀가 가실을 알아보게 되고 뒤 이어 단락 ④에서 사람들도 가실을 알아보게 된다.

단락 ①에서 ④에 이르기까지 가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단락 4-1은 모름(不知) → 앎(知)의 순서를 거치며 가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단락 4-1이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고, 사건의 전개과정도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25) 단락 ②는 가실이 거울을 보여주는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실에 설씨녀에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단락 ②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락 ③을 보면 설씨녀가 가실이 보여준 거울을 들고 울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가실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자 설씨녀를 찾아서 거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경합(破鏡合)』에서 단락 4는 다음과 같은 하위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가실이 돌아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장면

- ① 하루는 거울이 새 것처럼 빛났다.
- ② 계단을 내려와서 말을 보니 말도 날듯이 발굽을 굽었다.
- ③ 설씨녀가 의아해 하는데 설씨녀 부친이 들어오며 가실의 귀환 소식을 전한다.

4-2. 가실과 설씨녀가 만나는 장면

- ① 며칠 뒤 가실이 와서 어른들께 인사를 했다.
- ② 가실이 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내어 주었다.
- ③ 두 거울을 합치니 서로 맞았다.

4-3. 결혼하는 장면

- ① 길일을 택해서 잔치를 열었다.
- ② 많은 예물도 준비했다.
- ③ 신부가 신랑을 맞이했다.
- ④ 사방의 이웃들이 줄을 서서 구경하며 아내의 절개와 낭군의 의리를 칭찬했다.

설씨녀 설화에 비해 가실이 돌아오는 장면이 새롭게 설정되었고, 결혼의 장면도 세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단락 4-1은 여러 가지 예비적 사건을 설정하여 가실의 급작스런 출현으로 생길 수 있는 충격을 미리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실과 설씨녀가 결혼하여 신방을 꾸미는 모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단락 4-3은 두 사람의 행복한 결말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앞에서 다룬 것처럼 단락 1-1과의 연결을 통해 수미쌍관의 서술적 기법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락 4의 중심 단락은 가실과 설씨녀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단락 4-2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과경합(破鏡合)』에서 단

락 4-2는 깨어졌던 거울이 서로 합하여졌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을 뿐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가실이 깨어진 거울을 내밀었을 때 설씨녀 설화에는 이것을 받아들고 부르짖어 우는 설씨녀의 반응이 나타난다.²⁶⁾ 가실의 행위에 대한 설씨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설씨녀 설화가 인물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파생되는 사건의 전개과정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과경합(破鏡合)」에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 있다.

少年嘿無言	소년은 잠자코 말이 없더니
菱花出自囊	자신의 주머니에서 거울을 끄집어 내네
遂持兩鏡合	드디어 두 거울 합하니
圓徑正相合	둘레와 지름이 정말로 서로 맞네 (180쪽)

위의 인용문에는 가실이 거울을 꺼내어 누구에게 주었으며, 누가 그 거울을 서로 맞추어 보았는가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거울을 꺼내는 가실의 행위에 뒤이어 작품에는 두 거울을 합쳐보니 서로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다. 행위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거울이 합쳐졌다는 사실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IV. 서사구조의 차이

설씨녀 설화와 「과경합(破鏡合)」은 서사의 기본구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구조를 작품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작품이 동일한 서사적 내용을 다루면서도 이것을 설화와 시(詩)라는 이종(異種) 양식으로 드러내려 했던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26) 嘉實直前 以破鏡投之 薛氏得之呼泣(三國史記 卷四十八).

중국 한대(漢代)에 나타난 악부시(樂府詩)는 슬픔과 기쁨에 느낌을 받고 사실에 연유하여 발로한 것이기에 이야기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²⁷⁾ 악부시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특히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사악부(詠史樂府)는 사화(史話)를 악부시로 만든 것이기에 서사적 서정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⁸⁾

슬픔과 기쁨에 느낌을 받고 사실에 연유하여 발로했다(感于哀樂 緣事而發)든가, 서사적 서정시라는 말은 모두 이야기를 작품의 기본구조로 하여 작가의 정서를 표출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방법론에 의하면 작품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된다.

兒聞心爲帥	아이는 듣고 마음속으로 장수되고자
心壯氣骨剛	마음을 씩씩하게 하고 기골이 강해지게 하네
誓心欲作健	마음속으로 맹세하여 건강하게 되려 하고
慷慨試割捨	강개한 마음으로 칼쓰고 창던지기 시험 하네
舉杵學奮擊	절구공이 들고 달려가 치는 것 배우지만
堅重不可當	너무 굳고 무거워 감당할 수 없네
投棄却自頽	던져버리고 문득 스스로 주저앉아
抱父摧心腸	아버지를 안고 애간장을 태우는구나 (174쪽)

인용문은 설씨녀가 아버지 대신 병역을 감당하기 위해 신체를 단련하고 무술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설씨녀의 의도와 행동이 이야기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억센 남정네의 일을 감당하려 하는 설씨녀의 효성스런 행동에 대한 대견스러움과 한계에 부딪혀 절망스러워 하는 설씨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시라는 점에서 『과경합(破鏡合)』의 서사구조는 이

27) 김명덕 외 2인 편저, 『중국문학사』(청년사, 1990, 177쪽).

28) 김영숙, 『한국영사악부연구』(경산대학교출판부, 1998, 251~268쪽).

야기를 드러내며 이야기 위에 작가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씨녀 설화와 「과경합(破鏡合)」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찾아보는 것은 이야기 위에 작가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경합(破鏡合)」의 서사구조가 악부시의 창작 방법론과 부딪히며 나타나게 된 변화의 양상을 찾아보고, 이것이 설씨녀 설화의 서사구조와 구별되는 변별성을 확인해 보는 데에 있다.

『삼국사기』 『설씨녀전』은 설화로 분류된다. 설화의 순수 우리말 이름은 ‘옛날 이야기’이다. 옛날에 있었다고 가정하여 하는 이야기이므로 설화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야기라는 점에서 설화는 시간적 질서에 따라 서술되어진 사건들로 구성된 서사물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또한 서사물이 되기 위해서 설화는 시작에서 종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어야 한다.

설씨녀 설화는 설화의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설씨녀 이야기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서사구조가 사건의 전개과정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단락 2가 세 개의 하위단락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하위단락이 다수의 사건으로 채워지는 복합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설씨녀 설화에서 하위단락의 사건들은 장면에 해당되는 단락의 경계를 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행위의 연속성은 단락 1에서 단락 4에 이르기까지 설씨녀 설화의 전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이었다.

행위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설씨녀 설화에는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이야기가 어느 한 지점에서 중단되거나 어긋나지 않고 연속해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연속해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사건의 전개과정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사건의 전개과정을 드러내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설씨녀 설화가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목적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설씨녀 설화와 동일한 서사의 기본구조를 갖고 있고, 또 서사갈래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과경합(破鏡合)」에도 사건의 전개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과경합(破鏡合)」은 사화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사화를 보고 느꼈던 작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정서가 작품의 서사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과경합(破鏡合)」의 작가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설씨녀 사화를 보고 느낀 것은 열부로서의 설씨녀에 대한 감탄이었다. 작가의 정서적 반응은 작품에서 열부로서의 설씨녀를 부각시키게 하였고,²⁹⁾ 이것이 서사구조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열부로서의 설씨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과경합(破鏡合)」은 사건의 전개과정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기보다 설씨녀가 기개가 있는 강인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단락 1에서 신흠초야 신평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서 시작하여 설씨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나 부친의 병역을 대신하기 위해 무술을 배우는 모습 등 설씨녀와 관련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 단락 1은 다수의 삽화가 나열되는 방식의 서사구조를 드러내며 행위의 불연속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하위단락들은 사건의 전개과정보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서사영역을 구축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다.

설씨녀 설화는 구비문학으로 존재하던 것이었다. 『삼국사기』에 채록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개(變改)가 있었겠지만 있는 그대로 기술할 뿐 임의로 변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역사서술의 특성상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비(口碑)되는 이야기는 구비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를

29) 「과경합(破鏡合)」에는 설씨녀의 정절을 탄상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설씨녀의 행위에 감동을 하고 작품에서 설씨녀를 열녀로 부각시키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니되 표현이 복잡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³⁰⁾ 또한 역사의 기록은 개별적인 사실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을 서술할 때에도 사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개략적인 줄거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³¹⁾

구비되어지던 이야기라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역사서에 실려 있는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으로 해서 설씨녀 설화는 구비문학과 역사의 기록물로서 지녀야 되는 서사적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설씨녀 설화의 서사구조는 사실을 요약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건전개의 발단부분과 전개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단락 1과 단락 2는 물론이고 가실과 설씨녀의 혼인약속이 장애에 부딪히며 인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단락 3에도 요약 서술에 의해 사건의 개략적인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을 따름이다.

사실이 요약되며 나타나는 개략적인 줄거리는 이야기의 뼈대를 전달해 줄 뿐이다. 그러므로 줄거리는 사건이나 이야기의 전개과정을 전달하는 데에 치중하여 인물들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삶의 조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인물들의 행위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단락 3에서 설씨녀는 자신을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려 하는 부친에 맞서서 도망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못하게 되자 가실이 남겨두고 간 말을 쓰다듬으며 온다. 설씨녀의 울음은 그녀가 부친과 가실 사이에서 심각한 심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녀가 지니고 있는 고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설씨녀의 울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방황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 그녀가 도달하고자 하는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30) 설화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장덕순, 『설화문학개설』(이우출판사, 1975, 31~32쪽)을 참고했음.

31) 역사의 서술방식에 대해서는 안창수, 「김유신전의 서사문학적 특성」(『한민족어문학』4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6.30)을 참고했음.

드러내지 않는다. 문맥에 의하면 설씨녀는 절망하여 가실을 포기할 수도 있고, 부친의 신의 없음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계속 거부할 수도 있고, 자포자기하여 되어가는 대로 몸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설씨녀의 행위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설씨녀의 행위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 된 것은 설씨녀가 도망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이 “몰래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했다”는³²⁾ 한 마디로 요약되어 있어서, 설씨녀가 처해 있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설씨녀 설화는 행위의 의미를 추구하기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정절을 지키려 했던 설씨녀의 놀라운 행위를 드러내는 데 머무르게 되었다.

설씨녀 설화가 개략적인 줄거리를 제시함으로써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데 비해 「과경합(破鏡合)의 서사구조는 삶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씨녀를 열부로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단락 2는 설씨녀 설화와 「과경합(破鏡合)」모두에서 단락 1과 3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두 단락을 이어주는 사건전개의 과정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런데 「과경합(破鏡合)」의 단락 2에는 인물들의 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단락 2-1에는 가실이 병역의무를 자원했다는 하나의 행위가 있을 뿐이고, 단락 2-2는 설씨녀 부친에 의해 말해지는 한 번의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고, 단락 2-3에도 인물의 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건은 인물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의 전개에 의해 드러나는 서사적 과정이 최소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물들의 행위를 제거하고 단락 2가 드러내려 했던 것은 혼인약속이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락 2는 「과경합(破鏡合)」의 서사구조가 사건의 전개과정까지 희생해 가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2) 密圖遁去而未果 (『三國史記』卷四十八).

설씨녀 설화의 단락 3은 설씨녀가 부친과 가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설씨녀 설화의 서사구조가 인물들 사이의 관계의 망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가실과 설씨녀의 혼인약속이 이루어지는 단락 2에서도 단락 2-1은 설씨녀를 좋아했던 가실이 설씨녀 부친의 병역문제를 계기로 설씨녀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 단락 2-2는 설씨녀의 부친이 가실과 딸의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가실과 설씨녀의 관계에 편입되어지는 과정을, 단락 2-3은 설씨녀와 가실이 신표를 나누어 가지며 더욱 내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단락 4에서도 설씨녀 설화는 가실이 돌아와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며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설씨녀 설화에서 서사의 과정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되고 있고, 이것이 서사구조의 한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사갈래라는 점에서 「과경합(破鏡合)」도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서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락 4에서 「과경합(破鏡合)」은 깨어졌던 거울이 합쳐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 뿐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단락 2에서도 인물들의 행위가 대화로 대체되기도 하며 사건이 최소화되어 있었다.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행위로 드러나는 사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사건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것은 작품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락 2에서 「과경합(破鏡合)」이 사건의 전개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혼인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 데, 이것은 삶의 당위적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작가의식의 소산이다. 설씨녀 부친의 병역의무를 대신하려는 가실의 행위에 대해 그 높은 뜻이 하늘보다도 높다고 하거나,³³⁾ 가실이 설씨녀와 이별하며 서로가 약

33) 微誠詎感激 작은 정성 어찌나 감격했는지

속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천지 귀신에게 맹세하기도 하는³⁴⁾ 등, 단락 2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과경합(破鏡合)」의 서사구조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었고, 작품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경합(破鏡合)」에는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사용하여 가치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락 2에서 당위적인 삶의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 다음 뒤따라 나오는 단락 3에는 설씨녀와 부친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이게 한다.

대화는 서사문학에서 삶의 모습을 재현하여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단락의 대부분이 설씨녀와 부친의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락 3은 작품 전체에서 삶의 현장성을 가장 짙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단락 3이 인물들의 대화로 이루어진 것은 삶의 현장을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결과만이 아니다. 단락 3에는 설씨녀와 부친의 대화가 번갈아가며 나타남으로써 두 사람의 가치관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교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서로 대립되는 가치관이 논쟁을 통해 승패를 가르도록 짜여져 있었다. 그러므로 대화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관을 대립시켜 논쟁적으로 승패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 대화의 현장성은 가치관의 논쟁이 더욱 실감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경합(破鏡合)」의 서사구조가 논

高義陵穹蒼 높은 뜻은 하늘보다 높네 (174쪽)

34) 誓天地鬼神 천지 귀신에게 맹세하노니

兼義不相忘 의리를 서로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175쪽)

쟁적 방법을 동원해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맺 음 말

『삼국사기』의 「설씨녀전」은 우리나라 소설사의 기원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작품이고, 「과경합(破鏡合)」은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영사악부(詠史樂府)뿐만 아니라 서사시사(敍事詩史)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작품이다.

두 작품은 모두 서사갈래에 속하며 동일한 이야기 줄거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설화와 시(詩)로 드러남으로써 동일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하위 갈래로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종(異種) 갈래에 속하는 작품의 비교분석은 대비를 통하여 각자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 글에서는 두 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두 작품은 문제의 발생과 이의 해결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서사구조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구조를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두 작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설씨녀 설화는 이야기나 사건의 전개과정을 드러내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데 비해 「과경합(破鏡合)」은 열부로서의 설씨녀를 부각시켜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설씨녀전」이 구비문학과 사실의 기록물이라는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았던 데에 비해서 「과경합(破鏡合)」은 「설씨녀전」을 읽고 느꼈던 작가의 느낌을 작품화 하며 이것이 서사구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사건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설씨녀 설화의 서사구조와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파경합(破鏡合)」의 서사 구조는 이들이 상호 보완될 때 서사문학의 새 지평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설씨녀 설화가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을 본격화 하게 될 때 작품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 깊이 있는 담론을 전개시키는 데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때 「파경합(破鏡合)」은 서사적 완성도를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 이야기 줄거리(the outline of story), 사건전개(development of events), 삶의 의미(the meaning of life)

참고문헌

- 김명덕 외 2인 편저, 『중국문학사』(청년사, 1990)
 김영숙, 『한국영사악부연구』(경산대 출판부, 1998)
 장덕순, 『설화문학개설』(이우출판사, 1975)
 장덕순, 조동일 외 2인 공저, 『구비문학개설』(일조각, 1971)
 김영숙, 「영사악부의 설씨녀, 도이처전의 수용·전승 양상」(『한국의 철학』,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김영숙, 「이광사의 파경합 구성과 설씨녀전 수용·전승 양상」(『한민족어문학』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12.30)
 손정인, 「설씨녀전의 인물 형상과 서사구조」(『대동한문학』14집, 대동한문학회, 2001.6)
 안창수, 「김유신전의 서사문학적 특성」(『한민족어문학』4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6)

<Abstract>

The Narrative Structure Analysis of The Legend of
 「Solsinyo(薛氏女)」 and The Youngsa Akbu(詠史樂府)
 「Pakyunghap(破鏡合)」

Ahn, Chang-Soo

The legend of 「Solsinyo(薛氏女)」 and the Youngsa Akbu(詠史樂府) 「Pakyunghap(破鏡合)」 belong to the narrative, they have the same outline of story. But the one takes on a legend, the other takes on a epic. They show some varied aspects, because the same outline of story is received with different genre.

As regards having the circulation structure that th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problem repeats itself, they based on the same narrative structure. But the legend of 「Solsinyo(薛氏女)」 stress on expressing the development of events, the Youngsa Akbu(詠史樂府) 「Pakyunghap (破鏡合)」 aims at looking for the meaning of life. Because the legend of 「Solsinyo(薛氏女)」 is controled by the qualification that it is an oral literature and a documentary on a history, the Youngsa Akbu(詠史樂府) 「Pakyunghap(破鏡合)」 is produced by the emotion and thought of the poet who read the historical story about 「Solsinyo(薛氏女)」.

안창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번지

밀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전화: 055)350-5476

e-mail: csahn@mnu.ac.kr

이 논문은	2005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12월	30일	간행함